

# 해법 못 찾는 나주 SRF발전소...2년간 돌고 돌아 '제자리'

### 폐쇄 따른 손실보전·LNG발전소 운영주체 향후 핵심 쟁점 난방공사 집단에너지 사업 철수 입장에 또 다른 갈등 예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2년여 간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손실보전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측 입장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다. 정부, 전남도, 나주시도 떠안지 못한다는 입장이라 언제 해결될 지 미지수다. 여기에 난방공사측은 SRF 발전소 폐쇄 이후 나주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철수

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지역 난방사업 운영주체도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2700억 들었는데...폐쇄하면 투입비는 누가 내나>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을 담보 해달라는 요구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다.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당시부터 9차례

나 줄곧 제기됐지만 시험가동에 따른 주민 수용성 조사 여부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이 되면서 논의에서 밀려났다. 계 난방공사측과 거버넌스 안팎의 분석이다. 시험 가동으로 환경 유해성 여부를 측정 한 뒤 결과에 따라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 투표로 폐쇄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폐쇄에 따른 수 천억원의 발전소 건립 비용을 누가 책임질 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계 난방공사측 입장이다. 최초 시험 가동 과정에서 배출 기준치

이상의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공기질 입장에서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다. 난방공사측은 다음달로 예정된 12차 회의에서도 이같은 손실보전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요구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산자부를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을 요청하고 협력을 약속한 전남도, 나주시, 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껏 시험 가동에 합의하고도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SRF 대신 운영되는 LNG 발전시설은 누가 하나>SRF 발전소 폐쇄로 결정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또 있다. SRF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로 혁신도시 일대에 집단 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지만 난방공사측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운영 과정에서 SRF에 비해 100억이 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부담스럽고 보전비용도 매년 나주시 의회측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차라리 지방공기업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나주시와 전남도가 지방공기업 설립,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비를 떠안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또다른 갈등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여러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지역 정치권도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전 후끈

### 나주시도 유치추진위 발족식·결의대회 갖고 적극 나서

나주도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가 뛰어들었다. 해남을 비롯해 나주, 보성 등도 유치 활동에 나서면서 자칫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나주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은 전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기념관과 공원, 체험관 등을

조성해 호남지역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해남·보성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나주는 임진왜란 때 '간재(健齋) 김천일' 선생이 호남 최초의 의병을 일으킨데다, 호남에서 가장 많은 의병과 서훈자를 배출한 호남의 의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일제강점기 3대 항일운동으로 꼽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도 나주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발생한 일명 '맹기머리 사건'으로 촉발됐는데, '맹기머리 사건'은 당시 광주발 통학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 여학생의 맹기머리를 잡아당기며 모욕적인 발언과 조롱을 날리자 한국 남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충돌했다. 나주시는 올해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 90주년을 계기로 전라도 의향 정신에 대한 가치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고 확산하는 계획의 첫 단추로 '남도의병역사공원'을 유치기로 했다. 시는 의병 문중, 독립운동단체 등 1000여명 규모의 유치추진위를 출범시키고 유치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수영대회 즐겼다면...황포돛배서 '선상 국악공연' 즐겨볼까

시립국악단 27일~8월 17일 매주 주말·공휴일 공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을 위해 영산강 황포돛배에서 국악 특별 공연이 열린다. (사진) 나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 오후 1시 나주시립

국악단의 국악공연을 영산강 황포돛배 선상에서 선보인다. 선상 국악공연은 최대 96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대형 목조선인 '왕건호'에서 펼쳐진다. 왕건호는 영산포 선착장을 출발, 한국천연염색박물관까지 10km 구간을 1시간 가량 운항한다. 관광객들은 영산강변을 따라 선상공연

을 즐기며 영모정, 삼국시대 남녀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안고 있는 양암바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승선 체험료는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경로 및 초등학교생 4000원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도 팸투어(나주-화순)나 나주시티투어 참가자, 나주시민 등은 할인(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나주사랑 상품권' 할인율 내달부터 8%...시, 홍보·판촉 강화

나주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판매에 팔을 걷어붙였다. 나주시는 지난달 '나주사랑상품권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8%로 높인다고 25일 밝혔다. 나주시의 지역 상품권 할인율은 지난해 까지 2%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에 5%로 상향한 데 이어 8%까지 올랐다. 나주시는 지역상품권 할인율 인상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소비자금의 역의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되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나주시는 이같은 점을 들어 가맹점(1010개) 상품권 취급 표시 스티커를 바꾸고 홍보배너, 플래카드, 리플렛 배부량을 늘리는 등 활성화를 위한 홍보·판촉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나주시의 상품권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나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상품권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나주시 제공> 올해 들어서만 305개 가맹점이 추가되고 상품권 판매액도 7월 현재 18억8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6.8%의 증가를 보인 등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나주사랑상품권은 2007년부터 12년 간 총 237억5000만원여치가 발행된 가운데 207억원여치가 판매·유통됐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나주 장애인들 숙원사업 '장애인 연합회관' 12월 준공

나주지역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인 '장애인 연합회관'이 올해 말 조성된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인규 시장은 지난 17일 송월동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신축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나주시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55억 원을 투입, 송월동 일대 부지 8860㎡(면적

적 1943㎡)에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연합회관을 건립중이다. 준공되면 흩어져있던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를 한곳에 모아 장애인 관련 업무 기능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한다. 장애인연합회관에는 농아인협회, 지체 장애인협회, 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나주시지회 등이 동지를 틀 예정이

다. 또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실과 장애인들의 재활 및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연합회관은 장애인 단체 간 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교육부장관상**  
시·도 교육감상 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No Bullying, Yes Bling!

**제8회**

**청소년축제**

**2019. 08. 17(토) 10:00 ~ 19:00**

**광주 동구 금남로 공원**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 진로 탐색 및 적성 상담 / 학교폭력 상담  
신나는 체험활동관 /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 경품 이벤트

**경연대회 모집안내**

모집분야	대상	모집기간
공연예술분야 (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참가비 무료)	8월 13일(화) 까지

문의전화\_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 010.7174.1257  
자세한 사항은 **NAVER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_ 광주일보·아시아문화 | 후원\_ 교육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광주지방경찰청